

##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따른 군집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이 예 슬

진국대학교

김 은 하<sup>†</sup>

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Berry가 이차원적 문화적응 모델에서 제시한 문화 유형(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적합한지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문화적응 군집별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252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인 유학생은 3개의 군집(주변화, 통합, 분리)으로 분류되었고, 동화 군집은 나타나지 않았다. 군집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통합 군집의 한국 거주기간이 주변화 및 분리 군집보다 짧고, 한국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 군집이 가장 낮은, 주변화가 중간, 분리 군집이 가장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서는 통합 군집이 가장 높은, 분리 군집이 중간, 주변화 군집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주변화 군집의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군집의 경우는 두려움이 분리 군집의 경우는 차별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적 모델과 연결 지어 논의하였고,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문화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중국인 유학생,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

\* 본 연구는 이에슬(2015)의 석사논문을 일부 발췌·수정한 것으로 수집된 자료를 재분석하여 실시함.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은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Tel : 031-219-2787, E-mail : eunkim@ajou.ac.kr

교육부의 2014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주춤하지만, 여전히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의 수는 적지 않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은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의 59.3%인 50,336명으로 그 수가 가장 많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지리적인 인접성, 한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중국에 붙고 있는 한류 열풍 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김혜진, 2009; 나임순, 2006). 이렇듯 중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한국문화적응과 대학생활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학업문제 및 대인관계 문제, 경제적 어려움, 모국에 대한 그리움, 한국인의 차별, 사회적 고립,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이나 적응하기 힘든 한국의 음주문화와 같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민선, 석분옥, 박금란, 서영석, 2010; 이승중, 1996; Smith & Khawaja, 2011; Yeh & Inose, 2003). 물론 모든 중국인 유학생이 이런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각해지면 부정적 정서(예. 우울, 불안, 외로움), 정체성 및 가치관 혼란 등이 야기되고(김후조, 2011; Hwang & Ting, 2008), 간혹 자살이나 학업 중도 탈락 등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국내의 한 대학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유학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교내에서 자살시도를 하다 구조된 사건이 있었고(연합뉴스, 2010). 일부 중국인 유학생들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지 못해 한국 대학에서 중도탈락 하였다(진결, 2010).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가장 오래된 이론은 Oberg(1960)의 문화충격(culture shock)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이주자들이 주류 국가의 문화권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은 네 단계에 걸쳐 나타난다. 첫 단계는 '우호적인(honeymoon)' 단계로 이주자들이 처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감탄, 열정, 황홀, 흥분을 느끼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위기(crisis)' 단계로 이주자들은 시간이 지나고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문화충격, 즉 좌절, 불안, 분노, 부적절함 등을 느끼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회복(recovery)' 단계로 그 전 단계의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화의 언어, 문화, 관습에 대해 배워가는 단계이며, 마지막 단계는 '적응(integration)' 단계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고 기능적으로도 유능해지는 단계이다. 이러한 네 단계는 새로운 문화에 접촉하면서 초기에 느끼는 열정과 흥분, 그 후에 느끼는 위기감, 그리고 점차 그 문화에 적응해가는 U-curve의 형태로 나타난다.

문화충격 이론과 더불어 Atkinson, Morton, Sue(1998)의 소수민족 정체감 형성(Minority identity development) 모델도 관련 문헌에서 자주 언급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새로운 문화에 접촉하게 된 이주자는 처음에는 주류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모국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가진다('순응' 단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류문화의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게 되는데, 특히 차별을 포함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주류문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다('부조화' 및 '저항과 몰입' 단계). 그러나 이러한 시기를 넘기고 주류문화에 적응하면서 두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고 각 문화의 장·단점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내

적 성찰 및 '통합적 자각' 단계).

이와 더불어 관련 문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화적응 모델은 Berry(1980)가 문화적응의 상태를 범주화하여 제시한 이차원적 문화적응(Bi-dimensional acculturation)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문화적응은 '주류문화에 대한 수용/거부'와 '모국문화 정체성 유지/포기'의 두 가지 차원에 따라 4가지 유형(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으로 나뉜다(Berry & Kim, 1988). 먼저, 통합(integration) 유형은 주류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모국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둘째, 동화(assimilation) 유형은 주류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만 모국문화 정체성은 포기하는 유형이다. 다음으로 분리(separation) 유형은 주류문화를 거부하고, 모국문화 정체성만 유지하려는 유형이며, 마지막으로 주변화(marginalization) 유형은 주류문화에 대한 수용도 낮고, 모국문화 정체성도 포기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Berry의 이차원적 문화적응 모델은 문화 적응을 모국문화에서 주류문화로 동화되어 가는 단일적인 과정으로 본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모국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주류문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이차원적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Tadmor & Tetlock, 2006). 이 모델은 후속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으며, 이 모델을 출발점으로 주류문화 적응과 모국문화 유지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방법이 아닌 두 문화를 통합하여 문화적응을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LaFromboise, Coleman, & Gerton, 1993).

Berry의 이차원적 문화적응 모델을 토대로 한 연구들은 크게 1) 문화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2)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심리적 적응 이라는 두 가

지 큰 주제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문화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연령, 교육수준, 체류국가에 거주한 기간, 주류언어 구사능력), 내적 요인(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요인(사회적 지지, 지각된 차별감) 등을 꼽을 있다(김연수, 2013; 최혜지, 2009; Berry & Kim, 1987; Berry, Phinney, Sam & Vedder, 2006). 특히 선행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체류 국가에 거주한 기간, 주류언어 구사능력,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강재원, 2012; 강유진, 1999; 문형아, 2013; 허춘영, 김광일, 이장한, 1999; Constantine, Anderson, Berkel, Caldwell, & Utsey, 2005; Yu & Wang, 2011).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황지인(2008)과 남순현(2010)의 연구에서도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고 한국어 실력이 향상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도 여러 선행연구에서 문화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며(Lee, Koeske, & Sales, 2004), 주류국가 출신 친구의 지지를 많이 받는 유학생들이 통합 혹은 동화 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ian & Tsang, 2010).

이와 더불어,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들도 실시되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새로운 문화로의 적응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으로(Berry, 1986),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는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열등감, 문화충격, 죄책감 등이 있다(Sandhu & Araba, 1994).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 특히 불안, 우울, 신체화 증상, 정체성 혼란 등으로

표출 될 수 있다(Berry et al., 1987).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지각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Sam과 Berry(1995)과 진애경(2010)의 연구에서는 통합 유형을 보이는 이주민들이 가장 낮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재우(2005)의 연구에서는 분리 유형을 보이는 학생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차별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반면, 동화 유형을 보이는 학생은 차별감을 가장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과 동화 유형의 학생이 분리나 주변 유형의 학생에 비해 한국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고,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적응 유형에 따른 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문화적응 유형 중 통합 유형을 보이는 이주민 혹은 유학생이 가장 높은 심리적 안녕감 및 주관적 행복감을 보였고, 주변화 유형을 보이는 이주민 혹은 유학생들이 가장 낮은 심리적 적응 수준을 보였으며 동화와 분리 유형은 중간 정도의 적응 수준을 보였다(강재원, 2012; 김현옥, 추상엽, 임성문, 2010;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Berry et al., 2006; Kopic, Mannetti, & Sam, 2005; Zheng, Sang, & Wang, 2004). 이와 비슷하게 Weiss와 Kleinman(1988)의 연구와 Thomas와 Choi(2006)의 연구에서는 통합 및 동화 유형의 이주자들이 분리 및 주변화 유형의 이주자들보다 낮은 수준의 우울이나 불안, 높은 수준의 주관적 행복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송원영과 리난(2008)의 연구에서는, 통합과 동화 유형이 분리와 주변화 유형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이주민 혹은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Asian-American Acculturation Inventory(AAI),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 Suinn-Lew Asian Self-Identity Acculturation Scale(SL-ASIA), Vancouver Index of Acculturation(VIA) 등이 있다. 각각의 척도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문화적응의 구성 요소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 중 VIA는 주류문화와 모국문화 가치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주류문화와 모국문화 집단과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관계, 주류문화와 모국문화의 춤, 노래, 유머 등 문화적 양식에 대한 선호도, 언어사용과 선호도 등을 측정하는데,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문화적응의 요소로 공통적으로 추출된 개념들이다(Zea, Anser- Self, Birman, & Buki, 2003). 또한 VIA는 신뢰도, 간결성 면에서 다른 척도에 비해 우수하며 앞으로의 의도가 아닌 현재의 문화적응 양상을 측정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김은경, 권정혜,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IA가 측정하는 문화적응의 요소들을 문화적응 유형을 구분하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즉, 주류문화 수용이란 주류문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류문화 집단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류문화의 춤, 노래, 유머를 선호하며, 주류문화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자신감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모국문화 유지란 모국문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국문화 집단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국문화의 춤, 노래, 유머를 선호하며, 모국어를 사용하는데 자신감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전반적인 적응을 평가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지표는

그들의 대학생활 적응이다(서선자, 금명자, 2012). 특히 유학생의 경우는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체류국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학교적응은 전반적인 심리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이라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개념으로, 학업, 사회, 정서 적응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현상이다(진결, 2014). Baker와 Siryk(1989)는 대학생활적응을 학업 적응, 사회 적응, 개인-정서 적응, 대학만족도 등의 4가지 하위 요소로 분류하였는데, 먼저, 학업 적응은 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적응으로 학업에 대한 성실한 태도와 성공적 수행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 적응은 대학이라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정도, 교수나 교우와의 원만한 관계형성과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다. 셋째, 개인-정서 적응은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 및 신체화 문제와 관련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대학만족도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애착정도를 의미하는데, 해당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이나 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학업적 목표에 대한 몰입 정도를 포함한다(김오숙, 2014).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학업스트레스, 대인관계에서 어려움, 사회적 지지의 결여, 경제적 어려움, 차별 등을 겪는다(Wang & Mallinckrodt, 2006).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보고하는데, 이는 중국과는 다른 미국의 교육시스템 및 언어적 장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Mori, 2000). 이와 비슷하게, 국내의 중국인 유학생들도 외로움, 언어장벽으로 인한 학업문제, 경제적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차별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결, 2014).

이와 같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Poyrazli, Kavanaugh, Baker, & Ai-Timimi, 2004). 또한 국내의 중국인 유학생들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곽용, 2001; 진결, 2010). 그리고 몇몇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적 충격, 죄책감 등이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황지인(2009)의 연구에서는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문화적 충격, 죄책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황해연(2007)는 지각된 차별감이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및 외로움을 초래하고, 이는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주동범과 김향화(2013)의 연구에 의하면, 지각된 차별감 및 두려움이 학업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향수병이 개인-정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 충격은 학업, 사회, 개인-정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에 비해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는 서선자와 금명자(201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통합 유형을 보이는 일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 가장 잘 적응하고, 동화 유형을 보이는 일본 유학생들이 주변화 유형을 보이는 학생들에 비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합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높은 수준의 심리적 적응을 보인다는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를 통해 문화적응 유형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임춘희, 2009). 하지만 선행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Berry의 문화적응 모델을 토대로 모든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뉠 것을 가정하고 진행되었다(예. Schwartz & Zamboanga, 2008). 즉,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이미 문화 적응 유형들이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유학생들의 체류 국가, 출신국가, 나이, 거주기간, 체류의 목적 등에 따라 Berry의 문화적응 유형의 적용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진경과 양계민(2004)이 지적한 대로,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 할 때, Berry가 제안한 네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을 선택하거나 네 가지 유형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아 유형이 적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몇 해의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문화적응 유형을 도출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Brown, Gibbons과 Hughes(2013)의 연구와 Choi, Miller와 Wilbur(2009)의 연구에서는 Berry가 제안한 네 가지 유형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남미계미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Schwartz와 Zamboanga(2008)의 연구에서는 완전 통합, 부분 통합, 주류문화 중심 통합, 분리, 동화, 분류되지 않음 등 총 여섯 가지 유형이 나타났

다. 또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Jang, Kim, Chiriboga 와 King-Kallimanis(2007)의 연구에서는 통합과 분리 두 가지 유형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Berry의 네 유형이 모든 이주자 혹은 유학생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시사하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문화적응 유형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선행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은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여부가 성공적인 유학생화와 심리적 적응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주류문화 수용과 모국문화 정체성 유지에 따라 어떤 문화적응 하위집단이 존재하는지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서 실제로 어떤 문화적응 유형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의 하위집단의 특징을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각의 군집별로 연령, 성별, 한국 체류 기간, 한국어 수준,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각 군집별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은 주류(한국)문화 적응과 모국(중국)문화 정체성 유지에 따라 몇 개의 군집으로 나타나는가? 둘째, 군집별로 연령, 성별, 한국 체류 기간, 한국어 수준, 문화적응 스트

레스, 대학생활 적응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군집별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 방 법

###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온라인 설문과 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모든 문항은 중국어로 구성되었다. 연구자 1은 서울 소재 대학 내의 중국인 유학생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설문을 배포하였고, 서울 소재 K 대학의 국제협력처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설문지를 배포, 수거하였다. 설문지 응답은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응답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회수된 284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정보가 누락된 32부를 제외하고, 최종 252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90명(35.7%), 여학생 162명(64.3%)이었으며, 학위 과정은 대학생 197명(78.2%), 대학원생 55명(21.8%)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한국 체류기간은 1년 미만 이 44명(17.5%), 1~3년이 134명(53.2%), 3~5년이 50명(19.8%), 5년 이상이 24명(9.5%)이었다. 한국어능력시험 급수(1급~6급)는 3급이 90명(35.7%), 4급이 83명(32.9%), 5급이 45명(17.9%), 6급이 28명(11.1%)이었으며, 급수가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측정 도구

#### 문화적응유형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Berry(1986)의 이차원적 문화적응모델을 바탕으로 Ryder, Aldern과 Paulhus(2000)가 개발하고 Jianhui Song(2010)이 중국인 캐나다 이주자들에 맞게 중국어로 번안한 Vancouver Index of Acculturation(VIA)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ianhui Song(2010)의 척도에서 주류문화를 '미주문화'로 표현한 것을 '한국문화'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예. '나는 미주식의 농담이나 유머를 좋아 한다'를 '나는 한국식의 농담이나 유머를 좋아 한다'로 수정).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하위척도인 '주류문화수용' 10문항, '모국문화유지'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9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9='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 범위는 10점~90점으로, '주류문화수용' 하위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주류(한국)문화의 수용 수준이 높고, '모국문화유지' 하위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모국(중국)문화 정체성을 높게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Jianhui Song (2010)의 연구에서 '주류문화수용'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3이었으며, '모국문화유지'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주류문화적응'은 .87, '모국문화유지'는 .89이었다.

####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andhu와 Asraba(1994)가 개발하고, 이승중(1996)이 한국어로 번안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황지인(2008)이 중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36 문항이었으나, 황지인(2008)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인종, 피부색 등과 관련된 3 문항을 제외하고 총 33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이 척도는 '지각된 차별감'(예. 나는 이곳에서 불공평한 취급을 받고 있는 듯 하다; 6문항), '향수병'(예. 집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힌다; 4문항), '지각된 적대감'(예. 이곳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하고 있다; 5문항), '두려움'(예. 여기는 안전하지 못한 거 같다; 3문항), '문화적 충격'(예. 새로운 문화적 가치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3문항), '죄책감'(예. 나는 여기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2문항), '기타'(10문항) 등의 7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타'를 제외한 6개의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총 점수의 범위는 23점~1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황지인(2008)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0로 나타났다.

#### 대학생활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yk(1989)가 개발한 67문항의 대학생활 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황지인(2008)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중국어로 번안한 66문항의 대학생활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적 적응(21문항), 사회적 적응(11문항), 개인-정서적 적응(17

문항), 대학만족도(17문항)의 4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일반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우울, 불안, 신체화와 같은 병리적 증상을 측정하는 개인-정서적 적응을 제외한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만족도 하위요인(총 49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각 문항은 9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9='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 점수의 범위는 49점~44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황지인(2008)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전체 총점이 .90으로 보고되었고, 학업적 적응 .60, 사회적 적응 .62, 대학만족도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총점의 신뢰도 계수는 .93로 나타났고, 학업적 적응은 .81, 사회적 적응 .72, 대학만족도 .86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군집분석, ANOVA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Vancouver Index of Acculturation (VIA)의 하위 척도인 '주류문화수용'과 '모국문화유지'의 점수를 2점수로 바꾼 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으로는 Ward와 K-means의 2단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군집별로 인구학적 배경(연령, 성별,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별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척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주류(한국)문화수용과 모국(중국)문화유지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두려움, 문화적 충격, 죄책감)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들(학업 적응, 사회 적응, 대학만족도)간에도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주류문화 수용은 문화적응스트레스 총합, 차별감, 적대감, 두려움, 문화적 충격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고, 대학생활 적응총합,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만족도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에 반해 모국문화유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중 문화적 충격과 유일하게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대학생활 적응 총합, 사회 적응, 대학만족도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문화유지와 이러한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관

표 1.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                | 1     | 2     | 3      | 3-1   | 3-2   | 3-3   | 3-4    | 3-5    | 3-6   | 4      | 4-1    | 4-2    | 4-3    |
|----------------|-------|-------|--------|-------|-------|-------|--------|--------|-------|--------|--------|--------|--------|
| 1. 주류문화 수용     | -     | .42** | -.18** | -.14* | -.10  | -.14* | -.27** | -.22** | -.01  | .39**  | .27**  | .39**  | .37**  |
| 2. 모국문화 유지     |       | -     | .07    | .01   | .10   | -.03  | -.02   | .15*   | -.05  | .16**  | .03    | .30**  | .16**  |
| 3. 문화적응스트레스 총합 |       |       | -      | .80** | .66** | .75** | .75**  | .73**  | .58** | -.48** | .37**  | -.31** | -.52** |
| 3-1. 차별감       |       |       |        | -     | .39** | .59** | .49**  | .41**  | .35** | -.29** | -.21** | -.22** | -.31** |
| 3-2. 향수병       |       |       |        |       | -     | .32** | .47**  | .60**  | .42** | -.37** | -.31** | -.25** | -.38** |
| 3-3. 적대감       |       |       |        |       |       | -     | .49**  | .49**  | .52** | -.36** | -.23** | -.18*  | -.46** |
| 3-4. 두려움       |       |       |        |       |       |       | -      | .51**  | .35** | -.52** | -.39** | -.47** | -.50** |
| 3-5. 문화적 충격    |       |       |        |       |       |       |        | -      | .36** | -.36** | -.33** | -.15*  | -.39** |
| 3-6. 죄책감       |       |       |        |       |       |       |        |        | -     | -.21** | -.11   | -.10   | -.31** |
| 4. 대학생활적응총합    |       |       |        |       |       |       |        |        |       | -      | .89**  | .73**  | .88**  |
| 4-1. 학업적 적응    |       |       |        |       |       |       |        |        |       |        | -      | .51**  | .70**  |
| 4-2. 사회적 적응    |       |       |        |       |       |       |        |        |       |        |        | -      | .54**  |
| 4-3. 대학만족도     |       |       |        |       |       |       |        |        |       |        |        |        | -      |
| M              | 50.34 | 63.93 | 81.63  | 15.09 | 11.09 | 10.09 | 7.01   | 7.72   | 3.47  | 268.0  | 104.4  | 56.42  | 107.2  |
| SD             | 12.84 | 13.69 | 16.68  | 4.39  | 2.79  | 3.10  | 2.22   | 2.40   | 1.43  | 44.30  | 19.85  | 11.30  | 20.06  |

\*  $p < .05$ , \*\*  $p < .01$ , \*\*\*  $p < .001$

계는 주류문화 수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류문화 수용이 모국문화 유지에 비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대학 생활적응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 군집분류

주류(한국)문화수용과 모국(중국)문화유지를 군집 변인으로 하여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방법으로는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Wards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 계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3개의 군집이 의미 있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1단계에서 생성된 군집변인들의 평균 점수를 초기 중심점으로 투입하여 2단계에서 K-means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각 참여자를 해당군집에 최종 분류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군집 1은 62명(24.6%), 군집 2는 113명(44.8%), 군집 3은 77명(30.6%)으로 군집 2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erry의 문화유형 모델을 토대로 군집명을 정하였는데, 군집 1은 주류문화수용

과 모국문화유지 점수가 모두 낮은 '주변화', 군집 2는 주류문화수용과 모국문화유지 점수가 모두 높은 '통합', 군집 3은 주류문화수용은 낮지만, 모국문화유지가 높은 '분리'로 각각 명명하였다.

### 군집별 연령, 성별, 한국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먼저 군집별 연령을 살펴보면, 군집1(주변화)에 속한 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22.52( $SD=2.48$ ), 군집2(통합)에 속한 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21.92( $SD=2.28$ ), 군집3(분리)에 속한 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22.61( $SD=2.48$ )으로, 군집별 연령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군집별 성별의 분포는 전체 남성 90명 중 통합 군집에 속한 남성이 44명(48.9%), 분리 군집이 30명(33.3%), 주변화 군집이 16명(17.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여성 162명 중 통합 군집에 속한 여성이 69명(42.6%), 분리 군집이 47명(29.0%), 주변화 군집이 46명(28.4%)로 나타났다. 군집별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군집별 한국 거주 기간을 살펴보면, 주변화 군집의 한국 거주 평균 기간은 29.26개월( $SD=16.37$ ), 통합 군집은 22.76개월

표 2. 군집별 중심점표

| 군집변인                                  | 군집 1                    | 군집 2                    | 군집 3                   |
|---------------------------------------|-------------------------|-------------------------|------------------------|
|                                       | $n = 62(24.6\%)$<br>주변화 | $n = 113(44.8\%)$<br>통합 | $n = 77(30.6\%)$<br>분리 |
| 주류문화수용<br>( $M = 50.34, SD = 12.84$ ) | 39.45                   | 63.92                   | 42.12                  |
| 모국문화유지<br>( $M = 63.93, SD = 13.69$ ) | 44.96                   | 74.62                   | 73.84                  |

( $SD=19.70$ ), 분리 군집은 30.52개월( $SD=22.46$ )로, 통합 군집의 한국거주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4, 247)=3.52, p<.05$ ). 이에 반해 주변화 군집과 분리 군집의 한국 거주 평균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군집별 한국어 능력을 살펴보면, 주변화 군집의 한국어 급수가 4.10( $SD=1.04$ ), 통합 군집은 3.94( $SD=.936$ ), 분리 군집은 4.14( $SD=1.067$ )로, 통합 군집의 한국어 급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3, 248)=2.48, p<.05$ ). 주변화 군집과 분리 군집의 한국어 급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군집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

군집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

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군집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총합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차별감, 두려움, 문화적 충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ANOVA 분석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Type I 오류에 대해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Bonferroni를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Gelman, Hill, & Yajima, 2012). 그 결과, 분리 군집은 통합 군집에 비해 문화적응스트레스총합, 차별감, 두려움, 문화적 충격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분리 군집은 주변화 군집에 비해 차별감, 문화적 충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 총합과 하위요인에 대한 통합 군집과 주변화 군집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군집별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이 검증

| 변수              | 군집 1: 주변화 |       | 군집 2: 통합 |       | 군집 3: 분리 |       | $F(2, 249)$ | 사후검증                  |
|-----------------|-----------|-------|----------|-------|----------|-------|-------------|-----------------------|
|                 | $M$       | $SD$  | $M$      | $SD$  | $M$      | $SD$  |             |                       |
| 문화적응<br>스트레스 총합 | 80.24     | 18.40 | 79.30    | 16.34 | 86.17    | 14.97 | 4.27*       | 통합<분리**               |
| 차별감             | 14.18     | 4.83  | 14.64    | 4.21  | 17.70    | 6.26  | 3.36*       | 통합<분리*<br>주변화<분리*     |
| 향수병             | 10.98     | 3.00  | 10.96    | 2.56  | 11.38    | 2.98  | .57         |                       |
| 적대감             | 10.21     | 3.60  | 9.63     | 2.95  | 10.69    | 2.87  | 2.76        |                       |
| 두려움             | 7.24      | 2.51  | 6.47     | 2.11  | 7.62     | 1.96  | 6.92***     | 통합<분리**               |
| 문화적 충격          | 7.40      | 2.15  | 7.30     | 2.38  | 8.60     | 2.43  | 7.76***     | 통합<분리***<br>주변화<분리*** |
| 죄책감             | 3.53      | 1.46  | 3.49     | 1.38  | 3.42     | 1.52  | .12         |                       |

\*  $p<.05$ , \*\*  $p<.01$ , \*\*\*  $p<.001$

군집별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군집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군집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 총합과 대학생활 적응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ANOVA 분석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Type I 오류에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Bonferroni를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Gelman, Hill, & Yajima, 2012). 그 결과, 통합 군집이 분리 및 주변화 군집보다 대학생활 적응 총합,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분리 군집은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만족도에서 주변화 군집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 중 사회적 적응과 대학만족도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 총합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각각의 군집별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이 대학생활 적응 총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어 거주기간이나 한국어 능력은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회귀분석에서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먼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척도들의 Variance Inflation Factors(VIF)를 확인한 결과, 1.12~1.98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주변화 군집의 경우, 적대감, 향수병, 차별감이 대학생활 적응 총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합 군집의 경우 두려움, 분리 군집의 경우 차별감이 대학생활 적응 총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군집별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검증

| 변수         | 군집 1: 주변화 |       | 군집 2: 통합 |       | 군집 3: 분리 |       | F<br>(2, 249) | 사후검증                             |
|------------|-----------|-------|----------|-------|----------|-------|---------------|----------------------------------|
|            | M         | SD    | M        | SD    | M        | SD    |               |                                  |
| 대학생활 적응 총합 | 249.19    | 38.74 | 284.89   | 40.76 | 245.03   | 44.18 | 17.62***      | 통합>분리**<br>통합>주변화**              |
| 학업적 적응     | 99.27     | 16.36 | 109.72   | 19.01 | 101.21   | 21.86 | 7.82***       | 통합>분리**<br>통합>주변화**              |
| 사회적 적응     | 49.21     | 9.39  | 60.57    | 11.30 | 56.16    | 9.74  | 23.93***      | 통합>분리**<br>통합>주변화***<br>분리>주변화** |
| 대학만족도      | 98.69     | 18.69 | 114.61   | 17.30 | 105.21   | 21.23 | 16.63***      | 통합>분리**<br>통합>주변화***<br>분리>주변화**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5.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 총합에 미치는 영향

|                | 군집 1: 주변화 |          | 군집 2: 통합 |          | 군집 3: 분리 |        |
|----------------|-----------|----------|----------|----------|----------|--------|
|                | $\beta$   | t        | $\beta$  | t        | $\beta$  | t      |
| 차별감            | -.26      | -1.85*   | -.07     | -.66     | -.29     | -2.87* |
| 향수병            | -.30      | -2.51**  | -.19     | -1.80    | -.15     | -1.05  |
| 적대감            | -.49      | -3.40*** | .06      | .46      | -.16     | -1.27  |
| 두려움            | -.34      | -2.85    | -.49     | -4.57*** | -.23     | -1.87  |
| 문화적 충격         | -.14      | -1.03    | .06      | .49      | -.18     | -1.43  |
| 죄책감            | .20       | 1.50     | -.02     | -.15     | -.03     | -.32   |
| F(6, 65)       | 10.85***  |          | .90***   |          | .57***   |        |
| R <sup>2</sup> | .49       |          | .31      |          | .27      |        |

\*  $p < .05$ , \*\*  $p < .01$ , \*\*\*  $p < .001$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Berry가 이차원적 문화적응 모델에서 제시한 네 가지 문화유형이 중국인 유학생에게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주류문화 수용’과 ‘모국문화유지’의 두 차원을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별로 연령, 성별,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능력,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와 대학생활 적응을 어렵게 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Berry가 제시한 네 가지 문화유형 중 세 가지 유형(주변화, 통합, 분리)은 나타났으나, 동화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들이 북미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들에 비해 동화 유형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한 이수경, 오인수(2015)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동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는 먼저, 한국과 중국이 거리적으로 멀지 않아 중국인 유학생들이 모국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한국에 사는 다른 중국인 유학생의 수가 많아 한국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정서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현옥, 추상엽, 임성문, 2014).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은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자국민들과의 교류를 중요시하고(Triandis, 1989), 학업을 위해 단기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보다는 한국 내의 중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에 머무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Lee, Koeske, & Sales, 2004).

동화 유형이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는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꼽을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문화 참여 및 수용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며 동시에 모국문화 정체성의 욕구를 강화시킬 수 있다(신선희, 유문무, 2014; 진결, 2014). 예를 들어 임도경과 김창숙(2011)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들은 영어가 가능하거나 서구권 국가 출신의 유학생을 선호하는 반면에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감을 멀게 느낀다. 또한 중국에 대한 한국 대학생들의 편견(예. '중국인은 시끄럽다', '중국은 후진국이다')은 중국인 유학생들로 하여금 한국 학생들과 교우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다고 느끼게 하고(전재은, 장나영, 2012), 이로 인해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학 내에서 격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임수진, 한규석(2009). Berry (2005)는 주류국가 사람들의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 없이는 이주민이나 유학생들이 통합 유형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어느 나라나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존재하지만, 한국은 외국인이 살기 어려운 나라로 꼽히고 있다(전진경, 양계민, 2004). 한국인들의 편견과 차별이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재우, 2005),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대학 및 정부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군집분석으로 나타난 세 개의 문화 유형(주변화, 통합, 분리)에 따라 중국인 유학생들의 연령, 성별, 한국 체류 기간, 한국어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군집별로 연령이나 성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국 체류 기간과 한국어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체류기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통합 유형의 한국 체류 기간이 주변화 및 분리 유형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류 국가의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통합이 증가한다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송원영, 리난, 2008)와 다른 양상이다. 하지만 최혜지(2009)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게 통합 유형을 보인 이주여성의 한국 거주 기간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서선자와 금명자(2012)의 연구에서도 일본 유학생의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분리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소수민족 정체감 형성 모델(Atkinson 등, 1998)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로,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체류 초반에는 한국 문화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한국 문화를 학습하려고 하지만, 이 후 문화적응 스트레스(예. 한국인의 편견과 차별)를 경험하면서 초기의 호의가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재은, 장나영, 2012). 특히 대부분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 모국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허춘영, 김광일, 이장한, 1998),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통합에 대한 동기가 떨어질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체류기간을 더 다양하게 하여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통합 유형 보다는 분리 및 주변화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 문화를 수용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실제로 임은미, 정성진, 이수진(2010)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수준이 높으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아지지만 문화 적응 유형에는 차이가 없음이 나타났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대로 한국 사람들의 편견이나 차별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수용이 떨어진다면 한국어 수준과 한국문화의 수용이 항상 정적 상관관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문

화를 얼마나 수용하였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로 한국어 구사 능력이나 한국 음식의 선호도와 같은 행동적 요인과 더불어 한국 문화의 가치나 규범을 얼마나 내재화하였는지의 가치적 요인과 한국문화에 대한 애착 및 동일시와 같은 정서적 요인이 포함되어야겠다(B. S. K. Kim, 2007). 또한 한국어 수준이 높은 중국인 유학생에게도 한국문화를 통합하여 긍정적인 문화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세 개의 군집(주변화, 통합, 분리)별로 어떠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군집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총합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차별감, 두려움, 문화적 충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분리 유형이 통합 유형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총합, 차별감, 두려움, 문화적 충격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결과는 통합 유형이 가장 낮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Sam과 Berry(1995)와 진애경(2010)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분리유형이 주변화 유형에 비해 차별감과 문화적 충격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Schwartz와 Zamboanaga(2008)의 연구에서 분리 유형을 보이는 사람들이 주류국가에서 차별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에 반해, 주변화 유형을 보이는 학생들은 두 문화 중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은 '문화적 정체감의 혼란(cultural identity confusion; Berry & Kim, 1988)'의 상태이므로 오히려 차별이나 문화적 충격과 같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볼 때 분리 성향이 높은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여 이들의 문화적응 어려움을 돕는 학교 차원의 지지가 필요하겠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이 유학 초반에는 통합 유형을 보이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분리 유형을 보일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유학 초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세 개의 군집(주변화, 통합, 분리)별로 대학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통합 유형이 가장 높은 수준, 분리가 중간, 주변화가 가장 낮은 수준의 대학생활 적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 유형을 보이는 이주민 혹은 유학생이 가장 높은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감 및 대학생활 적응을 보이고, 주변화 유형은 전반적인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서선자, 금명자, 2012; 송원영, 리난, 2008;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Thomas & Choi, 2006; Zheng, Sang, & Wang, 2004)와 일치한다. 또한 분리 유형이 주변화 유형보다 대학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결과는 모국의 문화와 정체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로, 중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클수록 대학적응을 잘 한다는 남순현(2010)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분리 유형이 통합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의 대학생활 적응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문화의 긍정성을 부각시켜 이들의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에 반해 주변화 유형을 보이는 학생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지 않아 한국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학생활 적응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변화 성향이 높은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여 중국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중국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프로그램과 한국문화의 긍정성을 부각하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또래와의 상담 및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마지막으로, 군집별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변화 군집에서는 적대감, 향수병, 차별감, 통화 군집에서는 두려움, 분리 군집에서는 차별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변화 유형을 보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중국 커뮤니티와 한국 커뮤니티로부터 단절되어 적대감이나 향수병을 경험하면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주변화를 보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나 프로그램에서는 적대감과 향수병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변화 혹은 분리 유형을 보이는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들의 경우 한국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받으면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동화 유형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특히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체류 기간을 다양하게하여 동화 유형의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분리 유형이 주변화 유형 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측정하여 분리 유형이 문화적응 스트

레스에 취약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분리 유형을 보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특징과 이들이 지각하는 한국인의 차별에 대한 탐색이 중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민족성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김현옥, 추상엽, 임성문(2014)의 연구에서 중국인 조선족 유학생과 중국인 한족 유학생 간의 차이가 밝혀진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조선족, 한족, 및 기타소수 민족에 따른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을 세부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류문화 적응 수용과 모국문화 유지 점수만을 반영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의 문화적응 유형수는 4개, 즉 Berry가 제안한 문화적응 유형수와 같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의 여러 요소(예. 주류문화와 원문화 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언어능력과 선호, 문화적 지식, 문화적 가치, 문화정체성)를 측정하여 그 요소들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Berry의 4가지 문화유형 외에 다른 유형이 나타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Berry가 제시한 4가지 문화 유형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 이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유형별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이 다르다는 점을 밝혔는데, 특히 분리 유형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주변화 유형은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

다.

### 참고문헌

- 강유진 (1999).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강재원 (2012). 다문화 호주사회의 문화적응과 민족의 고유한 스포츠문화 참가: 한인 1.5-2세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한한인연구, 27, 7-59.
- 곽용 (2011). 재한 중국유학생의 대학환경지각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 (2014). 2014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정보공개.
- 김민선, 석분옥, 박금란, 서영석 (2010).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및 신체화의 관계: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적응적 완벽주의의 중재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29(4), 725-745.
- 김연수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영향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33(4), 5-38.
- 김오숙 (2014).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예측모형: 대처-적응문화 맥락적 모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경, 권정혜 (2009). 탈북자 문화적응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3), 761-781.
- 김재우 (2005). 재한 중국 유학생이 느끼는 차별과 대처방식이 문화적응유형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옥, 추상엽, 임성문 (2014). 유학생의 문화적응전략, 민족유형과 심리적 안녕감,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문화 및 사회문제, 20(1), 1-18.
- 김혜진 (2009).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연구: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후조 (2011).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낙관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임순 (2006). 외국인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생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5(2), 159-197.
- 남순현 (2010). 중국유학생의 학년별 학교생활 적응유형분석 및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정체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4(4), 977-998.
- 문형아 (2013). 중국인 유학생(한족-조선족)의 한국문화 수용실태 비교연구. 중국학논총, 39, 155-175.
- 서선자, 금명자 (2012). 재한일본유학생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유형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인간이해, 33(1), 35-47.
- 송원영, 리 난 (2008).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유학 초기 심리적 적응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2), 159-173.
- 신선희, 유문무 (2014). 재한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홀리스틱교육연구, 18(2), 45-69.
- 연합뉴스. (2010). 대학 도서관서 중국인 유학생 자살소동. 2010.5.1
-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해외거주 후 국내대학에 진학한 귀국대학생의 문화적응양상과 심리사회적적응. 한국심리학회지, 16(2), 125-146.
- 이수경, 오인수 (2015). 아시아 거주 한인 CCKs

- (Cross-Culture Kids)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 *아시아교육연구*, 16(1), 193-218.
- 이승중 (1996). 문화이입과정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도경, 김창숙 (2011).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이미지, 한국인 인정조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일반*, 19(1), 5-34.
- 임수진, 한규석 (2009). 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413-427.
- 임은미, 정성진, 이수진 (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 *상담학연구*, 11(3), 957-973.
- 임춘희 (2009). 중국인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93-112.
- 전재은, 장나영 (2012). 니하오?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학생과의 교우관계. *한국교육학 연구*, 18(1), 303-326.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주동범, 김향화 (2013). 국내외국인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교육연구*, 23(1), 123-145.
- 진 결 (2010). 중국 유학생의 외로움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 결 (2014).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류분석상담연구*, 4(1), 75-94.
- 진애경 (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경험과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지 (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163-194.
- 허춘영, 김광일, 이장한 (1999).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정신건강연구*, 18, 107-133.
- 황지인 (2008). 재한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혜연 (2007). 재한중국유학생의 대인관계문제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tkinson, D. R., Morten, G., & Sue, D. W. (1998).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Boston, MA: McGraw Hill.
- B. S. K. Kim. (2007). Adherence to Asian and European American cultural values and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mong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 474-480.
- Baker, R. W., & Siryk, B. (1989).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L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Padilla (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findings* (pp. 9-25). Boulder: Westview.
- Berry, J. W. (1986). The acculturation process and refugee behavior. In Williams, C. L. & Westermeyer, J. (Eds.), *Refugee mental health*

- in resettlement countries. The series in clinical and community psychology (pp. 25-37). Washington: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697-712.
- Berry, J. W., & Kim, U.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P. Dasen, J. W. Berry, & N. Sartorius (Eds.),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pp. 207-236). London: Sage.
- Berry, J. W., Phinney, J. S., Sam, D. L., & Vedder, P. (2006). *Immigrant youth in cultural transition: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cross national contexts*. Mahwah,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rown, C. M., Gibbons, J. L., & Hughes, H. M. (2013). Acculturation clusters and satisfaction. *Act De Investigacion Psicologica*, 3, 1108-1121.
- Choi, J., Miller, A., & Wilbur, J. (2009). Accultur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Korean immigrant women: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11, 13-19.
- Constantine, M. G., Anderson, G. M., Berkel, L. A., Caldwell, L. D., & Utsey, S. O. (2005). Examining the cultural adjustment experiences of African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A qualita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3-13.
- Gellman, A., Hill, J., & Yajima, M. (2012). Why we(usually) don't have to worry about multiple comparisons. *Journal of Research on Educational Effectiveness*, 5, 189-211.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 & P. R. Yarm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wang, W., & Ting, J. (2008). Disaggregating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on the mental health of Asian American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 147-154.
- Jang, Y., Kim, G., Chiriboga, D., & King-Kallimanis, B. (2007). A bidimensional model of acculturation for Korean American older adults. *Journal of Aging Studies*, 21, 267-275.
- Jianhui Song. (2010). *The Relations between Sleeping Arrangements, and Cultural Values and Beliefs in First Generation Chinese Immigrants in Canada*.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Alberta.
- Kosic, A., Mannetti, L., & Sam, D. L. (2005). The role of majority attitudes towards out-group in the perception of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of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273-288
- LaFromboise, T., Coleman, H. L. K., & Gerton, J. (1993) Psychological impact of biculturalism: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14, 395-412.
- Lee, J-S., Koeske, G. F., & Sales, E. (2004). Social support buffers of acculturative stress: A study of mental health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8, 399-414.
- Lian, Y., & Tsang, K. K. (2010). The impacts of acculturation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on the cross-cultural adaptation of Mainland

- Chinese Students in Hong Kong.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5, 81-102.
- Mori, S. (2000). Addressing the mental health concerns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 137-144.
- Oberg, K. (1960). Cultural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 *Practical Anthropology*, 23, 337-350.
- Poyrazli, S., Kavanaugh, P. R., Baker, A., & Al-Timimi, N. (2004). Social Support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Acculturative Stress i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7, 73-82.
- Ryder, A. G., Alden, I. E., & Paulhus, D. L. (2000). Is acculturation unidimensional or bidimensional? A head-to-head comparison in the prediction of personality, self-identity,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49-65.
- Sam, D. L., & Berry, J. W. (1995). Acculturative stress and young immigrants in Norway.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6, 10-24.
- Sandhu, S. D., & Asrabadi, R. B.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Schwartz, S. J., & Zamboanga, B. L. (2008). Testing Berry's model of acculturation: A confirmatory latent class approach.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 275-285.
- Smith, R. & Khawaja, N. (2011), A review of the acculturation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 699-713.
- Tadmor, C. T., & Tetlock, P. E. (2006). Biculturalism: A model of the effects of second-culture exposure on acculturation and integrative complex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7, 173-190.
- Thomas, M., & Choi, J. B. (2006).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Korean and Indian Immigrant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33, 123-143.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Wang, C. C., & Mallinckrodt, B. (2006). Acculturation, attach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Taiwanese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422-433.
- Weiss, M. G., & Kleinman, A. (1988). Depression incross-cultural perspective: Developing a culturally informed model. In P. R. Dasen, J. W. Berry, & N. Sartorius (Eds). *Health and Cross Cultural Psychology* (pp. 179-205). Newbury Park, CA: Sage.
- Yeh, C. J., & Inose, M. (2003). International students' reported English fluency, social support satisfaction, and social connectedness as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16, 15-28.
- Yu, W., & Wang, S. (2011). An investigation into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of Chinese students in Germany.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20, 190-210.
- Zea, M. C., Anser-Self, K. K., Birman, D., & Buki, L. P. (2003). The abbreviated

multidimensional acculturation scale: Empirical validation with two Latino/Latin sample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9, 107-126.

Zheng, X., Sang, D., & Wang, L. (2004). Accultur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f Chinese students in Australi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 57-72.

원 고 접 수 일 : 2015. 09. 18.

수정원고접수일 : 2015. 12. 16.

최종게재결정일 : 2015. 12. 19.

##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Types of Acculturation, Acculturativ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ee, Yeaseul

Konkuk University

Kim, Eunha

Ajou University

The authors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Berry's four types of acculturation(integration, assimilation, separation, and marginalization) would emerge from a cluster analysis within a sample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living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e authors tested if there would b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clusters in term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and if subtypes of acculturative stress would influence adjustment to college. Chinese students (N=252) from Seoul participated in the survey. Cluster analysis revealed three clusters(identified as marginalization, integration, separation), but assimilation did not emerge. Compared to the marginalized or separated group, the integrated group lived in Korea for a shorter period of time and were less likely to be fluent in Korean. The integrated group reported a lowest level, the separated group a medium level, and the marginalized group a highest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In contrast, a highest level of adjustment to college was observed among the integrated group, followed by the separated and marginalized groups. Lastly, it was found that for the marginalized group, discrimination, homesickness, and hostility negatively influenced adjustment to college, while fear for the integrated group and discrimination for the separated group negatively influenced adjustment to college. The authors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for acculturation theory and program development.

*Key words* : Chinese students, acculturation, acculturative stress, adjustment to college